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TEL 02-3460-7314 FAX 02 3460 7777

'글로벌 이슈 페이퍼' 정보는 전 세계 124개 무역관에서 오는 실물 경제정보를 취합 분석하고 현안 이슈가 발생한 해외 현장의 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우리나라 무역 투자 활동 지원을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이슈 요약

브라질 대선 결과 및 호세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 방향

- '14. 10.26일 있었던 브라질 대선 결선투표에서 호세프 대통령이 유권자 51.6%의 지지를 얻어 48.4% 지지를 얻은 아에시우 네비스 후보를 물리치고 재집권에 성공
- 이번 대선은 현직 대통령인 지우마 호세프가 재선에 도전한 것으로, 전임 룰라 정부에 이어 노동당 정권이 지속되는가 여부를 판가름하는 심판대 역할을 한다는데 의미가 있었음
- 호세프 후보는 노동당 지지 기반인 브라질 북부 및 북동부 지역의 저학력, 저소득층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물가안정, 빈민 지원금 유지, 고용확대 등의 선거 공약 및 전략을 구사
- 호세프 대통령 2기 행정부는 최근 침체에 빠진 브라질 경제를 성장 국면으로 전환키 위해 노력할 전망.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금 감면, 관료주의 완화 등의 친기업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인 출신의 재무장관 기용을 통한 외국투자자들의 불안을 불식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짐
- 아울러 브라질 정부는 도로 및 철도 인프라 부족으로 물류분야에 어려움이 많은 것을 감안, 브라질 남북 및 동서 철도 건설, 상 프란시스코강 수로 건설, 벨루 몬치 수력발전소 건설 등 시급한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추진 및 완공할 것으로 예상
- 우리기업은 향후 브라질 정부가 친기업 정책을 구사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브라질 시장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건설시장 등 유망시장의 전략적 공략이 요망됨

브라질 대선 결과와 향후 전망

< 2014.11.25. 신 흥시장팀 >

1. 브라질 대통령 선거 결과 및 시사점

□ 대통령 선거결과

- 현 대통령인 지우마 호세프 후보가 2차 투표에서 **51.64%**를 얻어 당선됨
 - 초반 저조한 지지율을 보인 네비스 후보는 제 1야당인 브라질사회민주당의 저력에 힘입어 인기를 회복하며 1차 투표에서 2위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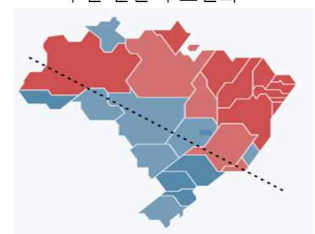
<브라질 대선 결과>

	1차(10.5일)		2차(10.26일)	
	득표수	비율(%)	득표수	비율(%)
지우마 호세프 (PT, 노동당)	43,267,668	41.59	54,499,901	51.64
아에시우 네비스 (PSDB, 브라질사회민주당)	34,897,211	33.55	51,041,010	48.36
마리나 시우바 (PSB, 브라질사회당)	22,176,619	21.32	-	-

□ 선거결과 시사점

- 2014년 브라질 대선은 현 대통령 지우마 호세프(Dilma Rousseff)가 재선에 도전, 룰라 정부에 이어 노동당(PT, 중도좌파) 정권의 지속 여부를 평가하는 심판대 역할을 함
 - 노동당은 룰라 정부 8년을 포함, 최근 12년간 정권을 주도해오면서 7%대 경제 성장, 저소득층 빈곤 타파, 견고한 중산층 형성 등의 성과를 이룸
 - 그러나 2011년 출범한 지우마 정부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경제성장 둔화, 내수시장 위축, 높은 인플레이, 외국인 투자감소, 공기업 비리 및 부정 부패등으로 국민의 비난을 받아옴
- 2차 투표 결과를 살펴보면 호세프 후보는 저소득층 유권자가 많은 북부 및 북동부에서 네비스 후보는 중산층 이상 엘리트 유권자가 다수인 남부 및 남동부, 중서부에서 두각을 보임
 - * 우측 그림 : 빨간색-호세프 승리지역, 파란색-네비스 승리지역

주별 결선 투표결과



□ 지우마 호세프 당선요인

- 호세프 후보의 경우, 노동당의 표밭인 브라질 북부, 북동부 지역의 저학력, 저소득층 유권자를 겨냥, 이들 눈높이에 맞춘 선거전략 구사
 - 물가 안정, 빈민 지원금 유지 등 피부에 와 닿는 경제 이슈와 소비 진작, 고용 확대 방안 등 실물경제 정책으로 서민층에 접근
 - 반면, 네비스 후보는 “엘리트다운 거시경제 정책”으로 인해 부유층과 지식인으로부터는 호응을 얻었으나 서민들의 지지를 확보에는 실패
- 1차 투표 이후, 3위를 차지한 마리나 후보(브라질 사회당)가 네비스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으나 브라질 사회당 내부적으로 지우마 호세프를 선호하는 편이었고 네비스 후보가 마리나 후보의 제안에 이견을 보여 마리나 후보의 표가 네비스로 연결되지 않음

<후보자 비교>

	지우마 호세프(Dilma Rousseff)	아에시우 네비스(Aecio Neves)
생년월일	1947.12.14. (66세)	1960.3.10. (54세)
소속정당	노동당(PT)	브라질사회민주당(PSDB)
주요 정치이력	· '80년 민주노동당 창당, 정치입문 · '85-'02 히우 그란지 두 술주 재무 장관 및 에너지장관 역임 · '01 노동당 입당, 룰라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부상. 정무장관 역임	· 총리, 법무장관, 재무장관을 역임한 외조부의 비서로 정치입문 · '87-99 미나스 제라이스주 3선 하원의원 역임 · '03-'10 미나스 제라이스 주지사
주요공약	· 공공안전 문제를 다루는 '국립공공안전연구원설치 · '18년까지 '국경없는 과학' 프로그램으로 10만명에 장학금 지급 · 전인교육 시스템을 갖춘 공립학교 학생 수 증원 · 투자/생산 관련 경비 감소 약속 · 저소득층 대상, 의약품 사용확대 · 장애인과 여성인권신장 · 여성보호센터 설치 · 남미 국가 간 결속 강화 · 아프리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와의 협력 확대	· 공공안전과 법무를 동시에 관리하는 부처(법무,公安부)설치 · 저소득층 가정 학생대상 사립학교 수학 기회 부여 · 도로, 철로, 수로 등 인프라 전반을 관리하는 정부 부처 설립 · 저소득층을 위한 진료시설을 4년 내에 10,000개 설립 · 장애인용 의료장비 구매지원 · 메르코수르 규정 완화를 통해 양자 자유무역협정 체결 · 브라질-EU FTA 협상 재개

2. 신정부 정책 방향 및 과제

□ 경제

- **(경제성장률제고)** 최근 침체에 빠진 브라질 경제가 성장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최소 **2~3%의 성장이 필요**하지만 공공예산 대폭감축, 인플레이 억제를 위한 기준 금리 인상의 정책 시행 등으로 경제 성장을 위한 특별한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
 - * IMF는 '15년 브라질 경제성장률을 1.4%로 예상
- **(인플레이 억제)** '14.10 기준 인플레이 지수는 6.5%로 목표치인 4.5%를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식품 분야의 소비자 체감 물가상승률은 8%에 달함
 - 인플레이 억제의 일환으로 브라질 정부는 10월 말 기준금리를 11%에서 11.25%로 상향조정
- **(환율 안정)** 지우마 2기 정부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로 달러화 대비 헤알화 환율이 1달러 당 2.5 헤알로 폭등 최근 6년 간 최고치를 기록
 - 외국인투자자 신뢰 회복 및 달러화 대량 반출 억제를 위한 정책 시행 예상
- **(생산부문 투자유치)** 브라질의 저성장, 재정건전성에 대한 의구심 등으로 국가 신용등급 강등이 우려되는 상황임. 전문가들은 '브라질이 성장 동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지적하고 있음
 - 이에 정책의 일관성 유지, 재정투명성 강화, 조세제도 간소화 등 강력한 개혁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 특히 지우마 대통령은 '15년부터 통합납세시스템(Simples Nacional)의 적용대상을 확대할 계획임
- **(Business Friendly 정책)** 각종 세금 감면, 관료주의 완화, 노무제도 개선을 통한 부담 감소 등 기업대상 인센티브 확대 등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되는 경제정책 마련할 전망
 - 지난 정권보다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크며** 기업인 출신의 재무장관을 기용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을 불식시킬 것으로 보임
 - * 브라질 최대 시중은행인 브라데스코(Bradesco)행장, 섬유업체 Coteminas 사장 등

□ 사회 · 교육 · 의료보건

- (사회통합) 이번 대선 득표율을 보면 지역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지역 · 계층 간 통합이 주요 과제 중 하나로 부상
- (서민지원 프로그램 운영) 빈민층 지원 프로그램인 Bolsa 파밀리아(Bolsa Familia), 서민 주택지원 프로그램 밍하 카자, 밍하 비다(Minha Casa, Minha Vida) 지속 예정
 - Bolsa 파밀리아의 경우 2004년 룰라 정부때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약 5,000만 명에 생활 보조금 지원
 - 밍하 카자, 밍하 비다 프로그램을 통해 345만호의 주택이 건설 중이며 절반 정도가 완공되어 입주 완료. 향후 대도시를 중심으로 프로그램 확대 계획
- (고용유지) 현재 브라질 실업률은 2002년 이래 최저 수준으로 지우마 후보는 선거 유세 기간 동안 노동당 집권 중 고용창출이 증가했음을 강조했으나 최근 경기 침체로 감원을 계획하는 분야가 많음
 - 2015년부터 제 2차 PRONATEC(무상 기술 교육 프로그램)를 통해 약 1,200만 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기술 교육을 제공, 노동력 품질 및 생산력을 제고할 계획
 - * 브라질 실업률 2014년 5.5%, 2015년 6.0%(전망)
- (공교육인프라 개혁) 브라질의 국공립 교육환경은 매우 열악한 편이며 교사 임금 수준이 낮아 교사들의 잦은 이직과 결근이 발생하고 있음.
 -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은 차기 정부에서도 Prouni(저소득층 대학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를 통해 대학에 합격한 저소득층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
 - * 동 프로그램은 '04년 시작되어 총 1,200만 명의 저소득층 가정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국공립학교 교사의 임금 인상과 교육 기회 확대를 약속
 - * '20년까지 석유 개발관련 로열티 1,180억 헤알이 징수될 예정이며, 이중 70%는 교육, 30%는 보건 의료 부문에 사용 전망

- **(의료서비스 개선)** 동 분야는 브라질 국민 87%의 희망사항으로 열악한 의료 시스템은 '13년 브라질 전국에서 발생한 시위의 핵심 요구사항이기도 했음. 지우마 대통령 역시 현 **보건의료인프라의 개선이 필요함**을 인정
 - ANS(국가 의료 보험 서비스 규제기관)의 관리감시 강화를 통해 민간 보험사들의 서비스 품질 제고, 의료 교육 분야 금융지원 확대, 교육기관의 효과적인 경영과 국제수준의 품질과 서비스를 갖추도록 하는 방안 마련할 예정
 - * 선진국의 경우 보건의료 분야 예산이 GDP의 8%인 반면, 브라질은 GDP의 4.6%
 - 신정부는 우선 **기초보건의료 시스템 개선**에 중점을 두고, UPA(응급진료소) 확대 설치, 국민의약품 혜택 강화, SAMU(구급차 서비스) 시스템 강화 예정
 - **전문 의료진과 각종 진단 검사 시스템 등을 대폭 확충**할 계획
 - * 진료, 검사, 입원, 수술 등 각종 의료 업무의 예약 및 관리가 가능한 통합 의료 시스템 설치
 - * '17년까지 의과대학 학부과정 11,000명, 레지던트 과정 12,000명을 증원

□ 외교 · 통상

- **(개방적인 FTA 추진)** 브라질은 지난 20년 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집트와 FTA를 체결하였으며 지나친 보호주의로 기업들이 많은 불만을 제기
 - 기업 및 단체로부터 시장 개방 압박을 받아온 호세프 정부는 2기 정부 출범과 함께 **자유무역협상에 대해 훨씬 개방적인 자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 현재 브라질은 남미공동시장(Mercosur)-유럽연합, 남미공동시장-태평양동맹 FTA 협상 진행중
- **(남미국가간 결속강화)**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은 남미공동시장(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우루과이)과 남미대륙 12개국이 모두 참여하는 **남미국가연합(UNASUR)을 중심으로 남미 통합을 지향**
 - 남미공동시장 국가 간 인프라 및 자원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남미 각국을 연결하는 광케이블 사업, 고속도로, 철도 등 교통망 구축, 수력발전소 건설 등을 통한 에너지 확충 등의 사업에 관심

- **(미국과 화해 무드 조성)**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우마 대통령에 보낸 재선 축하 메시지를 통해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비밀정보 수집 파문으로 경색된 양국 관계 회복을 시도하였으며 지우마 대통령 역시 미국과의 협력을 모색할 것
 - 미국은 브라질의 2위 수출대상국이자 협력국으로 최근에는 정치 외교뿐만 아니라 교육,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음
 - 특히 미국 정부는 중남미 지역에서 갈수록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브라질과의 전략적 협력을 지속
- **(아프리카·아시아와 협력 강화)** 기존의 경제 파트너인 유럽의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아프리카와 아시아 시장과의 교역 증가를 위한 방안 강구
 - 브라질은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하는 등 **중국과의 결속을 강화**하여 서유럽 경제위기가 야기한 성장둔화를 막기 위해 노력
 - BRICS(브라질, 중국, 인도, 러시아, 남아공)는 중국 주도로 최근 BRICS 개발은행 설립을 결정하는 등 명실상부한 경제블록으로 거듭나고 있음.

□ 인프라

- **저렴하고 품질 우수한 대중교통 및 물류 인프라 구축 시급**
 - 대중교통 부족으로 상습 교통정체구간이 다수 존재하며 철도 부족으로 화물 운송의 70% 이상이 도로 교통에 의존하고 있어 물류대란 발생 가능성 상존
- 브라질 신정부는 이미 공사를 착수했으나 완성되지 못한 102건의 프로젝트를 마무리해야 하며 **각종 기초 인프라를 현재의 두배 이상으로 확충**해야 함
 - 브라질 남북 및 동서 연결 철도 건설, 상 프란시스코(Sao Francisco)강 수로 변경, 벨루 몬치(Belo Monte) 수력발전소 건설, 마투 그로수-파라(Mato Grosso-Para) 간 철도 건설, BR-163 도로 포장 등 31건의 프로젝트는 브라질 산업 발전 및 경제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로 완공이 시급한 상황.
 - * 브라질은 인프라 관련 세계 200개 조사 대상국 중 112위를 차지

□ 치안

- 브라질은 치안 불안으로 막대한 사회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살인사건,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줄이기 위해 관련 정부기관과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종합 치안대책 필요**
 - * 2013년 살인사건 피해자 61,000명, 성범죄 피해자 50,000명
- 브라질은 강력 범죄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아 추가 범죄가 자주 발생. 따라서 **처벌 규정 강화 및 수감 시설 증가, 인프라 개선이 시급**
 - * 브라질 수감시설은 20만 명 수용 가능하나 2014년 3월 기준 총 수감자 수는 57만 4,000명임
- 브라질 정부는 마약퇴치 및 마약범죄 단속에 힘을 쏟고 있으나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

3. 우리 기업에 끼치는 영향

□ 브라질 투자환경 개선 가능

- 네비스 후보에게 박빙의 차로 승리를 거둔 지우마 2기 정부는 네비스를 지지한 산업계와 중산층을 의식, 친기업 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
 - 조세감면을 비롯한 각종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고려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 경제회복으로 인한 투자자금 회수에 대비, 외국인 투자유치 제고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
- 한편, 기업들 역시 브라질 코스트(Brazil Cost) 극복을 위해 조세제도 및 노무제도 개혁, 인프라 확충 등의 정책에 대해 압박을 가할 예정

□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 증대

- 브라질 경제성장을 제고를 위해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며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으나 지연된 100여건의 프로젝트를 마무리 해야 함
 - 각종 인프라 확충 사업은 주로 PPP(민관협력프로젝트) 형태로 진행되며 우리 기업의 경우, 브라질 현지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프로젝트 참가 가능
 - 한국 기업은 기술제휴, 건설 장비, 브라질 내 생산이 없는 부품 위주로 공급 가능

- 브라질 정부는 기존 교역 파트너인 EU의 경기침체로 인한 對EU 수출 감소로 아시아 및 아프리카와의 교역 증대에 노력할 것을 선거 공약에 언급

* '14년 9월 기준, 브라질의 對한국 수입은 67억 달러로 한국은 브라질의 제 6위 수입대상국임

□ 헤알화 환율 상승 및 수입규제 강화 움직임으로 인한 수출 애로 예상

-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을 늘리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는 반대로 최근 헤알화 환율이 상승하며 수입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지우마 후보 당선 후, 환율은 상승 추세를 보이며 2005년 이후 최고치인 달러당 2.6헤알을 기록. 전문가들은 2015년 환율을 달러당 약 2.7헤알로 전망

- 환율 상승에도 브라질 무역수지 적자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도 늘어나고 있음. 이에 전문가들은 일부 제품에 대해 수입쿼터 등 수입 규제를 강화할 수 있음을 예상

< 끝 >